

3분기 실적부진·美 대선 등... 국내증시 불확실성 '가중'

코스피 지수, 3주 연속 2600선 하회
外人, 삼성전자 순매도 역대최장 경신
3분기 순이익 전망, 0.5% 하향조정
역사적으로 美 대선 앞두고 약세 보여

국내 증시 부진 지속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3분기 실적 부진, 미국 대선 등으로 증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보수적인 투자관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3.09포인트(0.12%) 내린 2593.82로 3주 연속 2600선을 밑돌았다.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는 등 투자 심리가 위축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은 1조1618억원 을 순매도한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



1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2609.30)보다 15.48포인트(0.59%) 하락한 2593.82에,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765.06)보다 11.84포인트(1.55%) 내린 753.22에 거래를 종료했다. /뉴시스

3754억원, 5955억원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순매도는 28거래일 연속으로 역대 최장 기간을 연일 경신 중이다. 같은 기간 코

스닥 지수는 시장 비중이 큰 이차전지주의 부진 속에 전주보다 17.76포인트(2.30%) 내린 753.22를 기록했다.

향후 국내 증시는 중요 경제지표 발

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주요 대형 기업들의 3분기 실적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실적이 양호한 기업을 선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서프라이즈 실적을 보이기도 하지만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거나 이에 다소 못 미치는 실적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스피 상장사의 3분기 순이익 전망치는 최근 2주간 50조4000억원에서 50조1000억원으로 0.5% 하향 조정됐다. 4분기 전망치는 45조9000억원에서 44조원까지 4% 낮아지는 등 하락 폭이 더 컸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실적 회복 기대감이 둔화하고 수출 기업들의 환율 효과도 축소된 영향"이라며 "실적 전망이 양호한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다음달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도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치락 뒤치락하며 백중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에 따라 정책 불확실성이 수시로 높아질 수 있어서다.

또한 역사적으로 국내 증시가 미 대선을 앞두고 약세를 보여왔다는 평가도 나왔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000년 이후 미국 대선 해를 기준으로, 그해 10월말 혹은 선거일까지 2~3주간 코스피와 코스닥 추이를 보면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이 뚜렷이 나타났다"며 "변동성이 큰 코스닥 시장의 경우 최근 6번의 대선에서 모두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해외담배 호실적·강력한 주주환원 기대감

metro 관심종목
KT&G

2분기 어닝서프라이즈·경기방어주
3분기 실적, 시장기대치 부합 전망
증권가, 목표주가 상향조정 연이어

국내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인 케이티앤지(KT&G)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담배 사업 확대로 2분기에 이어 3분기 호실적도 기대되는 가운데,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T&G의 주가는 하반기 들어 21.09% 올랐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꼽히면서 수혜를 입은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KT&G의 3분기 실적은 매출액 1조6533억원, 영업이익 3822억원을 기록하면서 시장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됐다. 3개월 전

까지는 시장의 예상 영업이익이 약 4000억원에 달했지만, 지난해 부동산 부문의 선방 등을 고려해 소폭 낮아졌다. 다만 해외 담배 실적이 부동산 부문의 부진을 상쇄하면서 목표주가가 다시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강은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형 프로젝트 종료로 인한 부동산 사업부의 실적 부진을 담배 사업부가 상쇄했다"며 "국내 사업은 궤련, 궤련형 전자담배(NGP) 모두 시장 점유율 상승이 이어지고 해외 사업은 궤련 제품 주요 권역 가격 인상 효과와 함께 판매 수량이 증가하며 실적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목표주가를 13만원으로 8.3% 상향 조정했다.

이외에도 최근 ▲IBK투자증권 12만5000원 ▲키움증권 13만원 ▲교보증권 13만원 ▲신한투자증권 12만5000원 등이 KT&G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이달 들어 보고서를 낸 증권사들이 제시한 KT&G의 목표주가 평균은 약 12만7000원이며, 마지막 거래일 기준 KT&G의 주가는 10만6800원이다.

IBK투자증권 역시 해외담배 사업 호

조를 주목했다. 부문별로 담배 매출액은 1조812억원, 영업이익은 3225억원을 전망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11.2%, 19.7% 오른 수치다. 김태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며, 내년 NGP 신규 플랫폼 해외 출시 및 카자흐스탄 신공장(궤련 및 NGP 스틱 생산) 완공에 따른 글로벌 담배 사업 확대 기대감도 유호하다"고 설명했다.

KT&G는 향후 3개년간 총 2조8000억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자사주 매입·소각 1조원에, 배당 1조8000억원 등을 제시했다. 지난 2월 기준 보유 자사주(2.6%) 소각했고, 하반기 매입한 자사주(2.8%)도 10월에 소각 완료한 상태다.

조성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3대 핵심 성장 산업(전자담배, 글로벌, 건기식)에 집중한 공격적인 경영 전략과 설비투자(CAPEX) 집행이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립되며 주가가 양호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신하은 기자 godhe@



2024 AI/DATA 페스티벌 시상 및 기념촬영.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AI/DATA 페스티벌' 성료

네이버 클라우드와 공동 개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6일 네이버 클라우드와 공동으로 개최한 '2024 AI/DATA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하이퍼클로바 X(HyperCLOVA X)'와 함께 인공지능(AI)으로 만드는 금융투자자의 새로운 경험'이라는 슬로건으로 생성형 AI 및 다양한 AI 기술을 활용해 진행됐다.

총 336개팀이 참가해 대상과 최우수상 각 1팀, 우수상 3팀 및 총 상금 5500만원 규모로 진행됐다. 총 5개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대상은 '퍼스널LLM'팀이 수상했다.

M'팀이 수상했다.

'퍼스널LLM'팀은 뉴스를 활용해 주가가 급변하는 원인을 분석 후 알람을 보내는 서비스를 구축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한국어 자연어처리(NLP)에 특화된 네이버의 CLOVA Summary API 및 HyperCLOVA X를 활용해 서비스의 품질과 완성도를 높였다.

'퍼스널LLM'팀에게는 상금 2500만원과 미래에셋증권에서 주관하는 인턴십을 통해 제안한 서비스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팀에게는 상금과 별도로 미래에셋증권 입사 지원 시 서류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원관희 기자

사회환원 능력 키움증권 "임원 인선 중"

엄주성 대표, 국감 출석 사실상 불발

'SG(소시에테제네랄)발 주가 폭락 사태'의 후속 조치 점검 등을 위해 소환됐던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의 국정감사 출석이 사실상 불발됐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약속했던 '사회환원'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관련 재단 설립을 위한 임원 인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금융투자업계,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에 대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SG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키움증권의 리스크 관리, 후

속대책 등을 묻기 위한 출석 요구였던 만큼 올해 취임한 엄 대표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정무위는 당초에 증인으로 채택했던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증인 출석을 철회하고 지난 10일 엄 대표로 증인을 대신 채택했던 상황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SG발 주가폭락 사태' 연루 의혹을 받으면서 다우키움그룹 회장직과 키움증권 이사회의장직을 사퇴했다. 무더기 하한가 사태 직전이었던 지난해 4월 20일 시간의 매매(블록딜)로 다우데이터 140만주(3.66%)를 매도했기 때문이다. 현금화해 얻은 시세차익은 605억4000만원 수

준이다. 김 전 회장의 매각 이후 SG증권 창구를 통한 대규모 매물 출회가가 이뤄지면서 다우데이터는 이를 연속하한가를 맞는 등 주가가 4일 만에 약 62% 폭락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의장직을 사퇴하고, 다우데이터 주식매각대금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김 전 회장은 국정감사에 소환되고 있으며, 재단설립을 통해 약속했던 사회환원 움직임도 진척이 느린 상황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재단 이사장 및 사무국장 후보자 인선 중에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재단이 설립된 후 재단에서 대외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금감원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서비스' 지원

자산형성·경제적 자립 지원

금융감독원이 청년들을 위한 '1939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금감원은 만 19~39세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재무상담 서비스를 신청·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참가자 접수는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내달 2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선정된 대상자(선착순 420명)들은 전문 재무설계사와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연령 및 거주지만 모집 조건으로 고려하되, 자립준비청년을 우선적으로 모

집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경기도, 5대 광역시(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시) 및 전주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며, 해당 지역에서 상담이 가능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21일부터 우선 모집에 들어간다.

신청방법은 '1939 청년 재무 상담'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사)한국FPSB의 전문 재무설계사가 최대 2회(1차 대면, 2차 비대면) 상담을 제공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허정원 기자 zelkova@